

시총 50배, 거래대금 500배… 제조업→미래산업 재편

〈시총 상위 업종〉

코스닥 개장 25주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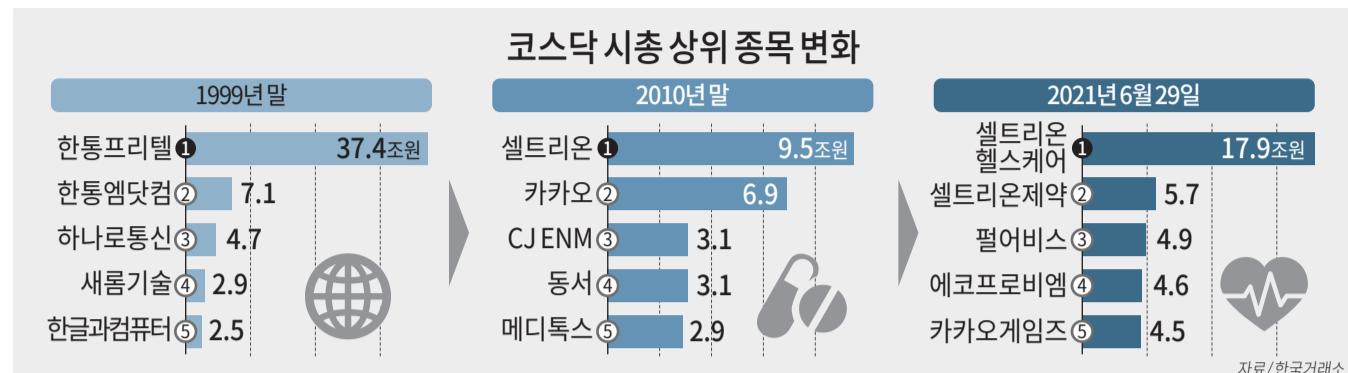
중소·벤처기업 67조 모험자본 수혈
출범 첫 해 시총 7.6조 거래금 23억
현재 시총 428조, 거래대금 12조

상장기업 수 341개사→1506개사
바이오·게임 등 차세대 산업 주도

코스닥시장이 지난 1996년 7월 1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지원
등을 목적으로 개설된 이후 개장 25주
년을 맞이했다.

개설 이후 67조원의 모험자금을 공급
하며 미래성장기업의 인큐베이터 역할
을 톡톡히 해냈다. 2000년 닷컴버블과
2008년 세계금융위기 등으로 침체기를
겪기도 했지만 시장 견전성 제고를 통
한 투자자 신뢰 회복과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를
회복했다는 평가다.

한국거래소가 개장 25주년을 맞이해



30일 발표한 '코스닥 시장 성과분석' 자료에 따르면 시장개설 이후 코스닥기업의 총 자금조달 규모는 67조 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6년 이후 최근 5년 동안 상장기업 수 증가의 영향으로 기업공개(IPO) 공모금액이 13조 1000억 원 까지 급증했다. 코스닥시장은 1996년 시가총액 7조 6000억 원, 일평균 거래대금 23억 원 규모로 출범했다. 전 거래일 기준 현재 코스닥 전체 시총은 428조 원 규모로 약 50배 이상 성장했다. 일평균 거래대금도 지난해 10조 8000억 원 까지 치솟은 후

올해도 12조 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출범 첫 해인 1996년과 비교하면 500배 이상 증가했다.

상장기업 수는 1996년 341개사에서 현재 1506개사까지 증가했다. 시장개설 후 11년 만인 2007년에 1000사를 돌파하며 급증하던 상장기업 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신규 상장이 위축되는 등 정체기를 겪었다. 2009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가 도입되며 옥석 가리기가 진행됐다.

최근에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4차산업혁명시대 개막과 제2의 벤처

높게 평가했다. 통신장비·부품 등 제조업 쏠림에서 벗어나 문화콘텐츠, 바이오·헬스케어 등 다양한 성장업종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시장으로 성장했다는 분석이다.

1999년 68.1%에 달했던 통신장비, 인터넷 등 정보기술(IT) 업종 비중은 현재 15.3%까지 낮아진 상태다. 반면 문화 콘텐츠와 반도체, 바이오·헬스케어 비중은 각각 9.6%, 11.5%, 16.7%까지 올라왔다.

시총 상위 업종도 제조업·위주에서 바이오, 문화콘텐츠, 4차산업 등 미래 성장 산업 중심으로 재편됐다. 1999년에는 한통프리텔(37조 4000억 원), 한통엠단컴(7조 1000억 원), 하나로통신(4조 7000억 원) 등 IT기업들이 시총 상위권에 포진했다. 하지만 현재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바이오·17조 9000억 원), 필어비스(게임·4조 9000억 원), 에코프로비엠(2차전지·4조 6000억 원) 등 차세대 산업으로 변경됐다.

/송태화 기자 alvin@metroseoul.co.kr

2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5000가구 공급

LH, 2일부터 청약 접수 실시
76개 시군구서 총 5192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음달 2일부터 2021년 2차 청년·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기존주택 등을 매입한 후 보수 또는 재건축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매년 분기마다 입주자를 정기 모집한다.

LH는 지난 3월 실시한 1차 정기모집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264가구를 공급했으며, 이번 2차 정기모집에서는 전국 76개 시군구에서 총 5192가구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391가구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674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127가구를 공급하며,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3499가구, 그 외 지역이 1693가구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만 19~39세의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



으로,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 기숙사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 수준으로, 보증금이 60만 원으로 저렴하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되는 주택으로,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 I'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 II'로 구분된다.

특히, 신혼부부 II는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 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거주할 수 있어 매월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거주기간은 청년·기숙사형은 최장 6년, 신혼부부 I은 최장 20년, 신혼부부 II는 최장 6년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

는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청약 신청은 입주 대상자 중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능하며, 무주택 요건, 소득 및 자산 기준 등은 주택 유형에 따라 상이하다. 단, 기숙사형의 경우 별도 자산 기준은 없다.

주택은 시·군·구 또는 주택군 단위로 공급되며, 신청자는 1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 단, 신혼부부 유형은 I과 II를 중복 신청할 경우 신혼부부 II 신청건만 인정된다.

모집 일정은 청년·기숙사형은 ▲청약접수(7월 2일~6일)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7월 8일) ▲서류제출(7월 9일~13일) ▲입주순번 발표(8월 19일)이다.

신혼부부형은 ▲청약접수(7월 2일~8일)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7월 12일) ▲서류제출(7월 15일~20일) ▲입주 순번 발표(9월 3일)이다.

LH 관계자는 30일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게 든든한 주거사다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

KB증권, 연금 비대면 시스템 전면 개편

신규 가입 절차 간소화
수수료 전액 면제 혜택도

KB증권이 연금 비대면 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통해 개인형퇴직연금(IPR)과 연금저축의 신규 가입 절차를 간소화한다.

연금 비대면 시스템은 고객이 직접 스마트폰 또는 인터넷을 이용해 본인의 퇴직금과 세액공제용으로 납입한 가입

금액을 조회하고 연금 자산에 대한 상품 운용 및 연금 지급 신청 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번 비대면 시스템 전면 개편을 통해 고객들은 ▲간편한 연금 계좌 개설 및 타사 계좌 이전 ▲쉽고 체계적인 상품 검색 및 매매 ▲이해하기 쉬운 연금 자산 현황 및 수익률 조회 ▲연령대별 인기있는 상품 및 수익률 비교 등 다양한 편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

게 됐다.

최근 KB증권은 비대면으로 IPR 계좌를 개설하는 모든 고객에게 수수료 전액 면제 혜택을 시행 중이다. 이번 비대면 시스템 개편으로 온라인을 통한 이용 편의성까지 추가로 제공해 고객들이 KB증권의 수준 높은 비대면 연금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해당 이벤트의 자세한 내용은 KB증권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M-able'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

한국투자證, 초고액 자산가 맞춤형 컨설팅

가나아트와 마케팅 업무협약 체결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9일 서울 한남동 가나아트 뷰잉룸에서 현대미술 갤러리 가나아트와 초고액 자산가를 위한 마케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주도한 한국투자증권 GWM은 자산 30억 원 이상의 초고액 자산가들의 법인 설립 및 자문, 글로벌 자산관리, 상속·증여 및 세금 등 종합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이다. 가나아트는 국내 대표적인 현대미술 갤러리로 1983년부터 대중에게 국내외 작가들의 실험적인 작품을 소개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투자증권 GWM은 가나아트와 공동 콘퍼런스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콘퍼런스에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미술품 투자 및 글로벌 자산관리·세무·부동산 투자 전략에 대해 소개한다. 또한 양사의 VIP 고객에게 관련 미술품 투자와 종합자산 관리 맞춤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개인고객그룹 부사장(오른쪽)과 이정용 가나아트 갤러리 대표이사가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협약식에 참석한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개인고객그룹 부사장은 "헬스케어·명품 등 다양한 외부 제휴 네트워크를 통한 초고액자산가 대상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에서 토탈 라이프케어 서비스 까지 차별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태화 기자 alvin@

5월 일임형 ISA 누적 수익률 28.38%

메리츠증권 수익률 37.57% '1위'

지난 5월 말 기준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누적수익률은 28.38%를 기록했다. 세계 증시의 양호한 경제 지표 발표와 경제 전망 개선 등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상승 부담으로 흥보세를 보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금융투자협회는 30일 지난달 말 기준 출시한 지 3개월이 지난 24개사 200개 MP(증권 14개사 122개, 은행 10개사 78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내놨다.

지난달 일임형 ISA 누적수익률은 전

월 말(28.46%) 대비 0.08%포인트 하락했다.

유형별로는 초고위험 50.45%, 고위험 40.32%, 중위험 24.97%, 저위험 13.81%, 초저위험 7.67% 순이다.

출시 이후 누적수익률로는 총 200개 대상 MP 중 약 85%에 해당하는 170개 MP가 10%를 초과하는 수익률을 올렸다.

회사별 평균 누적수익률은 메리츠증권이 37.57%로 1위를 기록했다. 각 MP 중 키움증권 기본투자형(초고위험)이 누적수익률 106.48로 전체 수익률 1위에 올랐다.

/박미경 기자